

퀀트가 제시하는 **잘** 나갈 **알짜** 전략

본격 17년 4Q 실적 모니터링 하는 자료

[Quant / Strategy]
이상민 Quant Analyst
 smlee@barofn.com
 +822-6099-8665

표준화 이익을 활용한 실적 모니터링

본 자료는 필자가 자료에서 언급한 표준화 이익 개념을 중심으로 하여 실적을 모니터링 하는 자료이다. 필자는 표준화 이익이라는 개념을 <표준화 이익을 사용한 3 분기 우수 실적 기업> (2017.11.13, 이상민, 바로투자증권) 에서 언급한 바 있다. 4 분기 실적 시즌을 맞이하여, 해당 로직을 그대로 사용하여 실적이 발표나는 기업에 대한 표준화 이익 및 순 이익을 업데이트 할 예정이다.

필자가 액티브 매니저(Active Manager)들에게 제시하는 활용법은 다음과 같다.

- 1) 표준화 이익이 일정 수준 이상/이하인 기업에 대하여 탐방을 가 볼 수 있다. 예를 들어 표준화 이익이 1.5 를 넘는 기업은 최근 16 개 분기 사이클 대비 이익이 큰 폭으로 개선된 종목이라고 볼 수 있다. 이러한 이익 개선이 지속될 것인지를 정성적 분석으로 판별해 볼 수 있다.
- 2)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할애하여 이 자료에서 제시하는 종목들을 동일 가중으로 편입하여, 초과수익률을 노리는 방법이 있다. 일종의 '별동대' 개념이다.
- 3) 역발상 투자자(Contrarian)라면, 오히려 표준화 이익이 극단적으로 떨어진 종목이 언제 개선될 지를 정성적으로 분석하여 접근하는 방법도 있다. 혹은 Short 의 아이디어를 잡아 볼 수도 있을 것이다.

표준화 이익으로 본 실적 우수 기업 Top 30

현재 시점까지 실적이 발표난 종목들 중, 17 년 4 분기 표준화 이익 우수 기업 상위 30 종목의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. 단, 영업이익 또는 순이익 적자 종목은 제외하였다. 또한, 2 월 7 일부터 시가총액 1000 억 이상만으로 유니버스를 제한하기로 하였다. 데이터가 어느 정도 쌓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.

[신규 편입 종목]

무림 P&P

[실적 우수 기업 Top 30]

큐캐피탈, CJ 오쇼핑, 쏘리드, F&F, 비에이치, CJ 헬로, 하나금융지주, 테크윙, 이노와이어리스, 기가레인, 아주캐피탈, 교보증권, 하이비전시스템, 에스엔유, 일진디스플레이, CJ 프레시웨이, 한양이앤지, 에이티넘인베스트, 더존비즈온, 화일약품, 티씨케이, 동아에스텍, 휴비스, 무림 P&P, 코웰패션, 서울제약, 셀트리온, 금호석유, 한전 KPS, LG 전자

Exhibit 1. 2017년 4Q 이익 발표 현황 (2/20)

종목명	시가총액 (억원)	FY17 4Q 영업이익				FY17 4Q 순이익				공시일
		추정(억원)	발표(억원)	표준화 영업이익	YoY (%)	추정(억원)	발표(억원)	표준화 순이익	YoY (%)	
셀바스시	1,103	N/A	4		흑전	N/A	-38		적지	02/20
한일진공	1,179	N/A	-5	0.11	적지	N/A	9	0.22	흑전	02/20
셀트리온	372,906	1,434	1,542	1.65	115.3	1,005	1,044	1.13	107.0	02/20
미래컴퍼니	6,397	N/A	50	0.41	504.3	N/A	7	-0.96	-75.6	02/20
무림P&P	3,617	140	210	1.39	236.8	194	190	1.76	흑전	02/20
모다이노칩	4,544	75	203	0.48	29.4	64	165	0.70	39.0	02/20

Source: Fnguide, Baro Research Center

Exhibit 2. 2017년 4Q 표준화 이익 우수 기업 Top 30 (2/20 기준, 시가총액 1000억 이상)

종목명	시가총액 (억원)	FY17 4Q 영업이익				FY17 4Q 순이익				공시일
		추정(억원)	발표(억원)	표준화 영업이익	YoY (%)	추정(억원)	발표(억원)	표준화 순이익	YoY (%)	
1 큐캐피탈	1,576	N/A	138	3.08	277.6	N/A	94	2.93	241.2	02/07
2 CJ오쇼핑	12,854	730	571	2.65	236.5	610	486	2.94	흑전	02/07
3 솔리드	1,615	N/A	378	3.17	흑전	N/A	85	2.55	흑전	02/14
4 F&F	5,567	421	545	2.70	84.3	319	413	2.39	86.5	01/29
5 비에이치	6,145	393	411	3.04	흑전	291	188	2.10	흑전	02/02
6 CJ헬로	6,777	189	176	2.75	흑전	110	86	2.19	흑전	02/07
7 하나금융지주	148,594	6,071	7,169	2.54	5964.2	4,735	5,130	2.32	376.9	02/02
8 테크윙	3,570	124	125	2.13	흑전	69	97	2.80	흑전	01/22
9 이노와이어리스	1,080	3	42	2.10	흑전	3	38	2.74	흑전	02/05
10 기가레일	1,601	29	22	2.07	흑전	24	43	2.44	흑전	01/29
11 아주캐피탈	4,022	N/A	198	2.43	흑전	N/A	149	1.90	흑전	02/02
12 교보증권	3,924	N/A	252	1.96	흑전	N/A	199	1.88	흑전	01/19
13 하이비전시스템	2,615	65	120	2.51	1348.8	47	63	1.55	528.7	02/08
14 에스엔유	1,173	N/A	9	1.94	흑전	N/A	40	1.81	흑전	02/12
15 일진디스플레이	1,993	58	37	1.28	흑전	49	16	2.66	흑전	02/02
16 CJ프레시웨이	4,446	67	105	1.78	2184.4	9	9	1.79	흑전	02/07
17 한양이엔지	2,799	N/A	133	3.02	흑전	N/A	110	1.08	흑전	02/07
18 에이티넘인베스트	3,024	N/A	73	1.99	3353.3	N/A	42	1.58	흑전	02/06
19 더존비즈온	15,044	152	207	2.44	57.4	117	146	1.24	44.1	01/24
20 화일약품	1,213	N/A	16	2.44	흑전	N/A	10	1.24	흑전	02/07
21 티씨케이	8,651	139	139	2.31	132.0	111	102	1.28	77.1	01/16
22 동아에스텍	1,041	66	74	1.15	42.1	N/A	68	2.26	103.9	01/23
23 휴비스	3,761	127	107	1.73	383.8	93	81	1.57	흑전	01/24
24 무림P&P	3,617	140	210	1.39	236.8	194	190	1.76	흑전	02/20
25 코웰패션	4,896	245	215	1.38	72.7	N/A	167	1.68	191.4	02/13
26 서울제약	1,101	N/A	35	1.74	82.4	N/A	27	1.41	125.9	02/13
27 금호석유	27,695	736	950	1.61	333.5	549	527	1.41	흑전	02/01
28 한전KPS	18,023	370	366	1.64	3425.6	305	305	1.40	1560.3	02/13
29 셀트리온	372,906	1,434	1,542	1.65	115.3	1,005	1,044	1.13	107.0	02/20
30 LG전자	170,194	4,668	3,669	1.33	흑전	2,633	1,828	1.38	흑전	01/23

Source: Fnguide, Baro Research Center

Compliance Notice

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지난 3개월간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증권 발행에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.
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%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 본 조사분석자료의 애널리스트는 자료 작성일 현재 위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.
 본 조사분석자료는 기관투자가 등 제 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 본 조사분석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.
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, 배포, 전송, 변형, 대여할 수 없습니다.
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,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